



# 계절을 닮은 문장들... 두 문예지 봄호 나란히

‘시와사람’...시와 예술의 관계 확장  
‘문학춘추’...시대 속 문학 역할 성찰

지역을 기반으로 꾸준히 축적돼온 두 문예지가 봄을 맞아 각기 다른  
결의 문제의식을 펼쳐 보이며 독자들과 만난다.

먼저, 계간 ‘시와사람’ 봄호(통권 119호)는 창간 30년을 앞두고 문학과 예술의 관계를 다루는 기획을 중심에 배치했다.

이번 호에서는 ‘문학과 예술의 상호 관계성’을 주제로 ‘텍스트 간의 상호 관련성과 김민정의 시 세계’를 게재하고 시와 육필, 그림, 수석 등 다양한 오브제를 결합한 작업을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문학 텍스트가 다른 예술 매체와 맺는 관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짚어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인카페’에서는 손수진 시인의 시집 ‘천일을 걸어 당신이라는 섬에 닿았다’를 다루며 사랑과 이별, 가족,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함께 살폈다. ‘남도시인 탐구’에서는 이승하 시인이 송수권 시인의 문학세계를 통해 남도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적 목소리를 들여다봤다.

‘신작 소시집’에서는 강영은 시인의 작품을 소개하고, 평론가 강나루가 ‘흔적과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 이를 해설했다.

연재 코너도 이어진다. 김동원 평론가는 ‘들춤과 감춤의

시학’ 연재의 일환으로 ‘리듬의 시학’을 통해 여러 시인의 작품을 분석하며 시의 목소리가 형성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해시태그’에서는 잠재적 시인이 송기영 시인을 화두로 삼아 시적 관계와 인간적 관계를 함께 모색했다.

또한 ‘이 시집을 주목한다’에서는 나희덕의 ‘시와 물질’, 지연의 ‘모든 날들이, 쉬었다 가렴’, 전숙의 ‘바다가 우는 방식’, 이선주의 ‘니체의 별’ 등을 통해 각 시인의 시선과 관심을 들여다봤다. ‘신작시’에서는 양문규·이달균·이혜선·조필·조의연·김귀례 등 30여명 시인의 작품을 수록했다.

이밖에도 문제완·우아지·전학춘의 시조, 곽해룡의 동시, 탁현수의 에세이를 함께 실어 지면 구성을 한층 확장했다. 아울러 조양순 시인을 신인으로 발굴해 언어 감각과 시적 가능성을 주목했다.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춘추’ 봄호(통권 제134호)는 문학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1992년 창간 이후 결호 없이 발간을 이어온 ‘문학춘추’는 이번 호에서 문학이 지닌 성찰과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집에서는 박두순 시인의 ‘문학과 인생 이야기’를 통

해 자연 속 유년의 기억과 문학을 향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삶과 문학의 관계를 조명했다. 표인주 전 전남대 박물관장은 ‘시는 정서적 출발점이자 감성의 공감장이다’를 통해 시가 개인의 감정을 보편적 공감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짚었다.

이외에도 정철웅 시인을 비롯해 문삼석·이성자·이옥근·강순아·양인숙 아동문학가, 송명화 수필가, 이민주 소설가 등이 참여해 시, 동시,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을 실었다. 각기 다른 장르의 작품들이 지면에 고르게 배치되며 읽을거리를 넓혔다.

또한 제132회 문학춘추 신인 작품상 당선작으로 김형동 시인과 백중호 시조시인의 작품을 수록해 새로운 문학적 목소리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 새로운 책



▲인생여전=양성민 저자  
제32회 전태일문학상 르포 부문 수상자, 현장노동자 양성민의 첫 책이 나왔다. 수상작을 포함해 20여년 육체노동자로 생활하며 꾸준히 써온 글들을 추리고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20여 년간 ‘지역’에서 조선, 건설, 제조, 농업, 장의, 택배, 시설관리 등 수많은 노동현장을 경험하며 일해온 에피소드들이 담긴 육체노동 에세이다. 글을 쓰는 육체노동자의 분노 속에서도 희망을 담아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시선은 다양한 독자에게 유쾌한 재미와 명랑한 통찰을 안겨줄 것이다. /тол베개·1만8천원



▲호구=김민서 저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호구’라고 불리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주인공 ‘윤수’는 짓궂게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도 화를 내지 못하고 착하게만 살아왔다. 점점 더 아이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 윤수는 자신을 괴롭히는 ‘권이철’처럼 강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한편 윤수가 자신에게 잘해 준다고 여긴 주은은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윤수는 주은과 선을 그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이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윤수의 가난을 들먹이며 괴롭히는 권이철을 더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고, 윤수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강하고 나쁜 아이’가 된다. /창비·1만5천원



▲폭풍으로 들어가기=카롤리 네 발 지음, 전은경 옮김  
엄마의 죽음과 언니와의 이별 뒤에 혼자 남은 이다가 낯선 이들의 호의를 만나 자신의 마음속 폭풍의 근원을 발견하는 이야기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 때문에,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가 버려지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십대 소녀 이다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묻는다. /다산책방·1만9천500원



▲풍뎡팡 어린이 카페=김지원 글, 원미 그림  
아이는 불안할 때 스스로를 달랠다. 애착 이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혼잣말을 하며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조절 능력’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상상을 통해 감정을 밖으로 꺼내고,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 낸다. 두려움은 모험이 되고, 긴장은 놀이가 된다. 그렇다면 혼자 잠드는 무서운 밤, 아이의 작은 이불 속이 환상적인 카페로 변한다면 어떨까. 상상은 재료가 되고, 용기는 레시피가 되는 세계, 혼자 자기 무서운 아이들의 걱정과 불안을 설렘으로 바꿔줄 카페가 찾아온다. /다산어린이·1만5천원

# 상처 입은 시대를 건너 산사서 마주한 삶의 질문

한송주·이상호 사찰 순례기 ‘저절로’  
내달 1일 오월미술관서 출판기념회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온 화가와 사찰의 의미를 탐색해 온 작가가 함께 쓴 사찰 순례기가 나왔다.

월간 ‘전라도닷컴’에 연재된 글을 엮은 단행본 ‘저절로’(전라도닷컴)는 한송주 작가와 이상호 화가가 참여한 책이다. 두 사람이 함께 현장을 찾고 기록을 쌓아 완성한 작업이다.

광주 중심사를 시작으로 광양 율동사지까지 전라도·전북 일대 사찰과 불교 유적 30곳을 따라 구성됐다. 장흥 보림사, 화순 쌍봉사, 여수 향일암, 김제 금산사, 구례 화엄사, 순천 선암사, 송광사, 해남 대흥사 등이다. 전남과 전북을 잇는 순례



경로를 따라 사찰의 역사와 공간의 의미를 함께 짚는다.

책은 절집을 관광지로 소개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마주한 삶의 문제와 변화의 과정을 함께 담았다. 절집을 과거의 유적이 아닌 현재의 삶과 이어진 장소로 두고, 순례 과정 속에서 개인의 경험과 시대의 기억을 함께 드러낸다.

이상호 화가는 1987년 조선대학교 재학 시절 걸개그림 제작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고문을 겪은 민중미술 작가다. 이후 치료와 창작을 병행하며 작업을 이어왔고, 이번 책에는 그 과정에서 제작된 그림 90

여 점이 실렸다. 작품은 사찰과 자연의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글과 함께 배치됐다.

한송주 작가는 사찰을 현재의 삶과 연결된 공간으로 바라본다. 글은 절집의 역사와 불교적 사유, 민초들의 삶을 함께 엮어 구성했다. 사찰을 삶의 질문을 다시 마주하는 장소로 풀어낸다.

김종길 미술평론가는 두 사람의 작업에 대해 “글과 그림이 서로를 풀어 안으며 이른 탐미”라고 평가했으며, 박규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기다리는 미학이 아닌 떠나는 미학”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절로’ 출판기념회는 오는 4월1일 오후 6시 오월미술관에서 열리며, 이날부터 한달 간 책에 수록된 이상호 화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이어진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